

이다.

벨기에에서는 大型原子力發電所(100% 벨기에 혹은 近隣諸國과 共有)와 小型石炭火力發電所를 組合시킬 余地는 있다. 따라서 N9 大型原子力發電所에 대해서는 N8의 2, 3년후에 결정하여 1997~1998년경 운전개시한다는 것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 VI. 結 論

벨기에의 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얻어진다.

○原子力發電의 비율은 총전력생산량의 50%를 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은 장래의 에너지投資로서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유망하다.

○국제협력에 의해서 電力會社와 原子力産業界는 電力系에 새로운 大型原子力發電施設을 導入하게 함으로서 효과를 擴散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電力需要의 增加率은 不確定하기는 하나 長期的으로 發電能力의 不足은 設備過剩보다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해결책이다.

## 벨기에, 다음 原電 國産으로

벨기에의 INTERCOM社가 최근 밝힌 바에 의하면 同國 9基째의 原子力發電所가 되는 Doel 5號機(PWR, 145萬KW)는 벨기에 國産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것은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가 지금까지 프랑스와의 共同事業에 의해서 건설되어 왔는데, 현재 프랑스側의 電力量이 飽和狀態에 도달되어 프랑스가 이번 계획에 參加하지 않을 것을 決定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벨기에에는 현재 프랑스가 건설중인 쇼오B1(PWR, 145萬KW)과 B2(同)에 25% 出資하고 있다.

## OECD/NEA, 廢爐는 技術的으로 可能

### 發電原價上昇은 數%

經濟協力開發機構·原子力機關(OECD·NEA)은 1986년 11월 25일 「原子力發電所의 decommissioning(廢爐)은 技術的으로 可能하며, 그 發生廢棄物量은 管理可能한 범위일 뿐만 아니라 코스트도 妥當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公表했다.

이에 의하면 지금까지 실시된 研究爐나 實驗施設의 광범위한 경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解體에 必要한 除染, 放射線被曝管理, 廢棄物管理 등의 技術적인 面은 이미 확립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앞으로 10년안에 decommissioning되는 大型의 發電所는 거의 없으며, 다음 세기 초에 運轉壽命을 맞이하는 발전소가 상당수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있다.

그밖에 最適의 decommissioning 戰略을 수립할 때 ① 公衆衛生이나 安全性, 環境保護, ② 解體하는 施設의 特徵, ③ 廢棄物管理, ④ 解體後 사이트의 再使用, ⑤ 코스트 및 資金의 入手, ⑥ 國家的, 社會的事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 다음에 케이스에 따라서는 早急히 실시되는 작업도 있을 것이나 終了까지 몇십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Decommissioning 經費에 대해서 이 보고서는 發電所마다를 보았을 경우 1億~1億8千萬달러(1984年美國달러)의 범위에 있다고 하고 이들의 차이는 一括해서 곧바로 解體해 버리거나 2 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하는가에 따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decommissioning 費用이 發電原價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全體의 불과 수%가 上昇하는 정도라고 結論내렸다.